전자 스모그, 위험의 근거를 밝히다(1부)

| **발터 라우프스 | 민기식**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생체광자, 생체공명은 생명체의 정보전달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종의 파동이며, 전자파 공명을 통해 커다란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신경쇠약에 고통 받는 아내를 치유하기 위한 길에서 만난 저자의 놀라운 발견을 들어봅니다(편집자 주) .

1970년대의 도시 스모그–자동차 배기가스, 산업매연, 기타 화학적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형성된 유해물질을 가리킨다–와 유사한 면을 본떠 만든 단어인 전자 스모그(electrosmog)는 전기(electro)와 연기(smog)의 합성어다. 이 표현은 오늘날 전자기적 환경 속에서 주파수와 강도가 각기 다른 여러 전자기장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전자 스모그는 전자기장과 전자기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뜻하는 포괄적 용어다.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철저히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헌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에도 연구원들이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특정주제에 대해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많은 위대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권력, 명예 혹은 물질적 보상에 의해 동기 부여된 이들도 있었으나 몇몇 과학자들은 그저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개인적 동기에서 프로젝트를 강하게 진행시켰다. 이런 방식은 많은 과학자들을 새롭고 기대하지 않은 시도를 하게 만들었다.

개인적 문제로 나는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됐다. 1972년에 아내 마그레트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회복될 조짐이 없었다. 이것은 나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다. 내가 아내의 증상에 대해 물어보면 의사들은 '곧 괜찮아질 겁니다.' 혹은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예요.'라는 진부한 대답만 할 뿐이었다.

내 추측으로는 이런 대답이 의사들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의사들이 내린 진단에 대한 나의 회의적인 입장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내 연구에 의하면 아내의 수술 후 회복이 이토록 오래 걸리는 것은 난센스였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자세히 아내의

상태를 관찰하고 검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검사결과 아내는 아주 건강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린 운명적인 진단 결과를 받았다.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었다.

그 같은 진단은 아내의 끊임없는 쇠약을 설명하는(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진단이라기보다는의사들이 자신들도 알 수 없는 병적 상태를 어떻게든 규정짓고 넘어가려는 핑계처럼 들렸다) 불길한 선고였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린 이 같은 진단은 그저, 정통의학이 병에 대한 설명(즉, 정확한 진단)에 있어서나 적절한 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갈팡질팡 하는지를 확인시켜줄 따름이었다. 우리는 믿을만한 친구의 권유로 자연치유사에게 연락했다. 그와의 첫 만남에서 그의 접근법이 정통의학이 지금껏 상황을 다뤄왔던 방식과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걸 즉시 눈치 챘다. 그가 아내의 끔찍한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아내가 처한 환경 또한 고려하는 점이 나에게 아주 합리적으로 보였다. 이것이 자연치유사이자 건축 생물학자와의 첫 만남이었다.

이 자연치유사와의 연속적인 만남은 내가 정통의학과 영원히 벽을 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내가 한 일은 학교로 돌아가 자연치유와 건축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두 분야를 모두 졸업했고, 일찍이 물리학과 의학도 공부한 바 있었다. 이런 경력은 내 미래 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나의 새로운 기술은 아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은 아내는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2주 후에 사망했다.

아내의 죽음은 나에게 그 어떤 한 가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환자의 증상을 뛰어넘어 병의 근본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

는 많은 의료시술에서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환자의 병의 원인을 잘 설명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바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며, 환자들이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때 일어난 호기심을 가지고 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천은 어렵다.“ 어디서 어떻게 할까?”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깊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박사논문을 쓰는 것처럼 이 문제에 부딪쳐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아직 의학실험이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었다. 결과적으로 내 연구에서 나는 물리적인 면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경오염과 환경적 스트레스, 특히 전자 스모그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 스모그가 무엇인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연구하는 동안 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내 주변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죽은 아내처럼 식물인간 진단이나 원인미상의 본태성질환 진단을 받았고, 전자파 과민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 특별한 주제에 대해 나는 아주 열심히 또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마침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확신이 서기 시작했고, 몇 해뒤에는 내가 운영하는 ‘프리드릭스회에(Friedrichshöhe) 자연치유 및 알레르기 치료센터’에서 실제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8년 동안 두 번째 아내인 발트라우드와 슈바르츠발트에 있는 진료소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 스모그에 대한 이중맹검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다.

나와 아내는 전자 스모그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전자파 과민증일 수 있는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수백 개의 파일을 정리해야 했다. 이중맹검 연구를 위해 컨트롤 그룹을 함께 묶어두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게다가 우리 치료법의 효과를 측정할 방법도 고안해야 했다. 이중맹검 연구는 이런 절차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이 준비기간 중이 실험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많은 환자들과 인터뷰해야만 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 단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이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제품(무척 많다)을 모두 입수해서 정말로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한 뒤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골라서 우리 환자들에게 사용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전자파 차단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중맹검 연구에서 확실하게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은 잘못된 전략임이 드러났다. 우울한 사실이었다.

나는 계속 전자 스모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연구의 범위를 넓혀야 했다. 실망스러운 실험 결과로 본의 아니게 나 스스로 전자 스모그 차단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내가 가진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켜야 했다.

나의 조건은;

- 전자 스모그 차단 제품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 사람들에게 가격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 건물을 개조해야 하거나 방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기술검사 시 가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이중맹검 연구와 다른 시험에서 유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물리학에서 더 심도 깊은 연구 뒤에, 나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스칼라 파동이라는 것을 알았다(스칼라 파동은 맥스웰 파동 혹은 테슬라 파동이라고도 알려졌다). 스칼라 파동은 니콜라 테슬라

(Nicola Tesla, 1856~1943)가 밝혀냈고, 공학박사 콘스탄틴 메일(Konstantin Meyl), 아로노프(Aharonov), 봄(Bohm)의 1959년 논문, 베어든(Bearden)과 스위트(Sweet)의 1986년 논문, 베어든의 2001년 논문 등에서 확실하게 그 존재가 입증되었다. 스칼라 파동에 기초한 기술을 만들고 그것을 iHITTM(역(逆)조화정보기술, inverted Harmonized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라고 이름 붙였다. 마침내 많은 환자들을 생체공명으로 치료하면서 나는 미세한 에너지의 놀라운 효율성을 찾아냈다. 슬프게도, 부작용이 없는 이 놀라운 치료법은 풍부한 자료와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국제적 연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학계에서 무시당하고 거부당해 왔다. 의학계의 전문인들은 이 치료법을 그냥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간주하고 있다.

나는 생체공명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학이나 의학에 전혀 학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체공명 치료법의 효율성을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들의 무지에 근거한 오만한 판단은 그들에게는 그 논지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의학계의 이단자들이 내놓은 한 치료법에 대해서 효과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명백한 치료 효과를 평가절하 한다. 단지 그 치료법의 효과를 측정했을 때 아무런 표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전기기사가 쓰는 전류계(전류를 측정하는 장비)로 유기체에 존재하는 미세한 에너지장을 측정한다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그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그 어떤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와도 무관하다. 물리적 가능성과 현상에 대한 그들의 형식적이고 표면적 주장은 마치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어, 이것은 사기야. 그것은 어떤 과학적 자료가 없어'로 요약된다. 이같은 태도는 심장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전기기사들이 쓰는 전류계로 심전도 검사나 뇌전도 검사를 하려드는 것과 다

전자 스모그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주파수이다. 중요한 것은 전자기성 스트레스의 강도가 아니다. (불쾌한 소음과 감미로운 음악의 차이는 볼륨이 아니듯) 정답은 특정 주파수와 파장에 있다.

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스칼라 파동의 테크놀로지를 미래의 전자 스모그 차단 장치에 활용하려 했을 때 나는 그 테크놀로지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론을 실행에 옮기고 나만의 전자 스모그 차단 장치를 만들 때까지는 나는 새로운 장치를 고안하고 만들어야 했다. 스칼라 파동(종파 혹은 세로파로도 알려져 있다)은 일반 의학계에서 계속 무시당해왔다. 내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픈 생체공명 치료법도 아주 유사하다. 생체공명 치료법을 무시한 바로 그 사람들이 스칼라 파동 또한 효율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스칼라 파동을 단순히 사기로 치부해 버린다.

나는 왜 과학자들이 측정 가능한 사실만 믿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필요에 의해서 과학적 용어와 과학적 수단을 개발했다. 그러나 도구라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그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또한 결점이 있고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정보의 가치는 과학적 시각에서 결정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우리는 사랑을 웰빙의 느낌으로 인식한다. 웰빙의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면 그 신체적 변화는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과 거절의 느낌을 단순히 화학적 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갈증 날 때 마시는 물과 배고

플 때 먹는 빵, 절망스러울 때 듣는 위안의 말, 연인의 부드러운 애무는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취의 기쁨이나 직장을 잃어 우울해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의 비애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감히 이 같은 반응(정보적 차원에서 일어나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기술과 전기 측정의 노예가 되어있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일반 의사들에게 6개월 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고 내 클리닉에 온 환자들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봤으면 한다. 숱한 노고 끝에 나와 아내 발트라우트와 우리 클리닉의 자연치유사들은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자기조절력과 자연치유력을 회복시켜 그들을 시한부 인생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 상당히 자주 나의 치료법은 환자들을 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년간 자연치유사와 물리학자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병이란우리의 몸이 외부의 침략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의사로부터 자신이 불치병이란 말을 듣고 우리 클리닉에서 병이 완치된 사람의 깊은 감사함과 안도감을 표현하기는 힘들다. 측정된 것만이 진짜라고 믿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이 순간에 있다면 그들은 측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더 마음을 열지도 모른다. 결국 사람이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의 합보다 이상의 존재다.

현재까지 과학은 물질이 물리적, 화학적과정의 결과이므로, 분석이라는 측정 수단을 통해 밝혀내어 기호나 숫자로 표식화된 것만이 진짜라는 잔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런 관점은 미묘한 에너지를 망각한 채 세상을 상당히 굳고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물리와 화학계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테스트 과정에서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

해 증거 불충분으로 사장되고 만다. 이는 곧, 현재의 측정 수단으로는 검사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그 대상의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 과학계도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현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과 과정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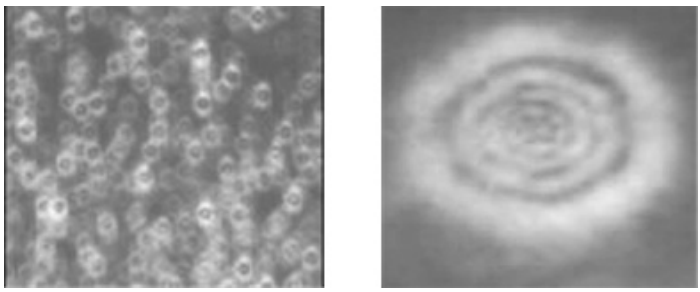

그림 1. 보여지는 생체광자

유명한 독일 연구가이자 과학자인 프리츠 포프 박사(Prof. Dr. F Popp)가 발견한 생체광자의 존재는 특별히 고안된 기술 장치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왼쪽 그림은 활성화된 물속의 생체광자이다. 오른쪽 그림은 생체광자 한 개를 6배로 확대한 모습이며 육각형 구조가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과학은 어떤 과정들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생물 유기체나 핵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혹은 은하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 의해 생겨난 효과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는 항상 특정 법칙과 질서에 입각해 일어나므로 효과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분석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분야의 현상도 설명 가능하다. 이 같은 분석 방법으로 미세한 에너지를 연구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동종요법, 생체공명, 포프 박사의 생체광자 연구와 니콜라 테슬라의 발견 또한 아주 중요하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문장을 생각하며 과학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중 잣대를 쓰지 않나 생각했다. 판단이야 각자의 자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그나즈 젬멜바이스, 사무엘 하네만, 니콜라 테슬라, 프리츠 포프 박사와 그의 생체광자 연구와 같이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매도당했던 인물들의 운명을 생각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모두 당시의 기득권에 의해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다.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는 에너지 정보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1920~30년대 소련의 유명한 자연과학자 블라디미르 베르나드스키(Wladimir I. Wernadskij, 1863~1945)는 생물권의 존재에 대해 묘사했고 사람이 이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과학자는 더 나아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정교한 규제적 과정들로 통합되어 있고, 환경적인 전자기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생물체는 단순히 현재의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으로 압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체를 물질적 • 에너지적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의 과학자들은 현재의 물질과 에너지로 대표되는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분야, 즉 정보의 세계까지 다룰것이라고 예견했다.

베르나드스키와 견해를 같이하는 일류의 과학자들이 꾸준히 증가추세에있다. 아인슈타인은 정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생명체의 모든 것은 진동이다. 삶은 진동이다.' 막스 플랑크는 '세상에 물질이란 없다. 모든 것은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교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이론물리학을 가르치는 야키르 아로노프는 양자 물리학의 권위자이다. 아로노프-봄 효과 등 그의 이름을 딴 물리현상도 네다섯 개나 된다. 사람들이 그에게 정보에

대해 한마디 물었을 때 그는 '생체광자는 몸 안의 정보의 캐리어이다.' 라고 대답했다. 캐나다의 생체물리학자인 비구 델 블랑코는 전자기 방사선과 이것의 흡수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고 세포 간 정보교환을 문서화했다.

독일 물리학자인 프리츠 포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 주로 일본,중국, 인도에 – 40개의 생체광자 연구팀이 있다. 매년1억 달러를 투자하는 일본은 전신 광자 스캐너를 개발 중이다. 특히 포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DNA는 정보를 흡수해서 세포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전자기 안테나'이다. 확고한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몸의 정보 과정들이 모든 생명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가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없는 생명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언어, 문자, 책, 숫자, CD, DVD, 신문, 라디오, TV, 그림, 자기적 테이프, 사진, 음악, 색깔, 형태, 온도, 표정, 유전적구성, 맛, 냄새 등등... 정보는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다. 또 듣기, 보기, 느낌, 냄새, 맛이라는 다섯 가지 감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법칙에 따라 똑같은 방식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그 감각 정보의 해석은 개인적 단위로 일어나며 개인마다 다르다. 이 현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측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은 물리적•화학적 수준에서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내 전자 스모그 연구의 핵심을 말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 관점에서는 전자스모그의 가장 효과적인 보호책은 스칼라 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나는 운 좋게도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연구를 더 정교히 할 수 있었고 머지않아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듯하다. 8년 동안 나는 꾸준히 자연치유 알레르기 치료센터에서 이 연구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또 개발한 모든 제품들을 다양하고 아주 많은 환자들에게 실험할 수 있었다. 이 방식으로 많은 환자가 완쾌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이 과정에서 나는 전자 스모그가 정말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나는 전자 스모그가 근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양한 종류의 병과 증상 그리고 사소한 통증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내가 도달한 결과는 생체물리학에서 내린 결론과 비슷하다. 몸 안의 정보는 이동이 교란되면 건강은 자연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전자 스모그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주파수이다. 중요한 것은 전자기성 스트레스의 강도가 아니다. (불쾌한 소음과 감미로운 음악의 차이는 볼륨이 아니듯) 정답은 특정 주파수와 파장에 있다. 이 사실은 수많은 국제 과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면 안전 수준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가 모두 핵심을 놓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전자기장은 그 강도에 관계없이 세포 수준에까지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병에 대해 광범위한 실험 끝에 나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의 예를 통해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Treatise on Electrosmog'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홈: http://esmog-responders.com

저자 | **발터 라우프스(Walter Laufs)** |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 연구원, 발명가. 자연치유가인 발터는 1961년 군대를 마친 후 물리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기술에서 인턴을 했다. 1967에서 1971년까지 쉰들러 사에서 안전 기술을 중심으로 일을 했다. 1971년에서 1979년까지 텔레푼켄(Telefunken) 사에서 컴퓨터 기반 운송시스템을 연구, 개발했다. 1979년에서 1986년까지 리고니에서 생산 개발팀을 담당했다. 1986년에 커리어를 바꾸면서 자연의학과 건축생물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고, 1988년에 졸업했다. 1988년에서 2004년까지 아내 발트라우드(발리)와 함께 독일 슈바르츠발트 프리드릭스회에 자연치유 알레르기 센터를 운영했다. 또 전자파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

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 Willau Troni™, eSmog–Responders™과 같은 전자파 차단 제품을 발명했고, WillauTronic™ 사를 통해 유럽과 호주에서 전자파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일깨웠다. 2009년 9월, 국제 eSmog–esponde™사의 공동설립자이자 부회장으로서 최고의 전자파 차단 제품을 세계에 소개하며 세계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역자 | **민기식** | 지금여기 번역위원